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20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20
2020 년 09 월 20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094826899](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094826899)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09 월 20 일

차례

1. [그러면그원내쓰지말라]	3
2. [민주노총발“아바타집회”유감]	3
3. [같은‘파업’, 다른잣대]	4

1. [그러면그원내쓰지말라]

2020년 9월 18일, 기안 84는네이버웹툰에연재중인'복학왕'대표현이 여성혐오적이라는논란으로인해 4주만에"나혼자산다"에출연했다. 방송에나 온그는프로그램시작전자신의부족했던여성주의적감수성에대해사과했다. 같은날, 한겨레신문은"황진미의 TV 새로고침"이라는코너에"기안 84' 지키려는원내나는가치무엇인가"라는칼럼을내보냈다.

혹자는웹툰내여성혐오적표현이오프라인세상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제재해야한다고주장하나, 제재해야할것은오프라인에서벌어지는여성혐오적행위의현실이이지이를표현하는비현실내개인의표현의자유가아니다. 아울러설령작품에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이것이현실로이어진다는주장은게임을많이하면사람을죽인다는말만큼이나우스꽝스럽기그지없다.

비판할지점이한두군데가아니지만개인의표현과창작의자유를제한하려는파쇼적행태는구역질나며부족한점에대해진솔하게사과하는이에대한조롱은분노를일으킨다.

앞서한겨레는칼럼에서'기안 84 지키려는원내나는가치'가무엇이냐고질문했다. 그렇게질문한"황진미의 TV 새로고침"의 2020년 9월 5일자칼럼제목은"'여은파'극강패션, 19금토크, 거침없는여성예능'이었다. 같은표현의자유를두고이렇게정반대의입장을표현하는한겨레역시표현의자유라는가치의보호를받고있다. 기안 84를지키려는원내나는가치란한겨레가편향된편을들수도있는표현의자유그자체인것이다. 만약이원내가그리싫으시다면한겨레는그원내를사용하지않으셔도괜찮지않은가.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62757.html

2. [민주노총발"아바타집회"유감]

아래기사를클릭하면, 귀엽다. 솔직히말해서요근래에본노동관련기사중에가장귀엽다. 이토록정성스럽게인형사진을찍고, 그사진아래캡션마저포덕심을자극한다. 하지만너무귀엽다보니오히려불편하다.

민주노총서울본부가인형으로대체해서집회를개최한날, 타워플랜트노동조합지들은사측의노동조합파괴에항의하는집회를진행하다감염병예방법위반, 집시법위반이라는명목으로구속되었다. 각지의경찰서에서는코로나-19 상황을빌미로, 노동자들의집회신고가반려되고취소되고있다. 코로나-19 상황때문에단체교섭이감압하지만, 단체행동을할수있을지우려되어쟁의행위를하지못하는노동

동자들도 많다. 그리고 이들 또한 민주노총이 대변해야 할 조합원이다. 하지만 이들이 대변한 이야기는 < 노동과 세계 > 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면 집회를 최소화하겠다는 결심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큰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 역시 우리의 자유에 대한 포기이자 양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형을 세워 놓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자랑스러워 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19 의 창궐은 분명한 사회적 위기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허상에 목매어 대면 집회를 없애고 입법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파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아바타 집회”를 진행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숨 걸고 집회를 개최하다 구속 당한 타워플랜트 동지들에 대한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임을 알아달라. 대중성과 정치 투쟁에 함몰되고, 현장에서의 투쟁을 바라보지 않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아바타 집회”에 유감을 표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668>

3. [같은 '파업', 다른 잣대]

택배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 간에 과중한 노동 시간 에 항의 하며 파업 결의에 들어갔다. 21 일 부터 택배 노동자 과로 사 대책 위원회 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전면 거부한 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인 물류량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끔찍한 노동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왔지만, 이번 추석에 쌓여왔던 분노가 터진 것이다.

파업이 결의되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업을 결의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가장 파장이 컸던 '파업' 인의사 파업. 파업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던, 사실상 이름뿐인 파업을 자세하게 다뤘던 한국 보수 언론들이 이번 파업을 어떻게 다뤘을까?

아니나 다를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란' 을 일으키는 일로 소개되었다. 특정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택배 파업에서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노노 갈등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파업의 정당성과 그 힘을 약화시키고자 시도했고, 여러 자극적인 단어 선정 을 통해 끊임 없이 부정적인 기류를 확대 재생산했다.

이는 의사들의 '파업' 때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 그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을 때에는 정부의 공공 의료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가능한 중립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언론들의 시선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졌다. 그들의 잣대는 고작 한 달 사이에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었다. 과연 그들의 이중 잣대가 언론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빨갱이 정부' 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곰씹어 봐야 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https:// biz.chosun.com/ site/ data/ html_dir/ 2020/08/27/2020082702658.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2658.html)

[https:// biz.chosun.com/ site/ data/ html_dir/ 2020/09/18/2020091801053.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8/2020091801053.html)